
코로나19 대응 관련 해외 환경정책 동향

2020. 6. 12.

[기간 : 6. 8 ~ 6. 12]

동향자료 요약

국가/국제기구	주요 내용
유럽연합	- 프랑스와 독일이 힘 보탠 코로나19 기금, 친환경 정책에도 기여할 듯(6.8) ▶ 프랑스와 독일이 코로나19로부터 유럽연합(EU)의 ‘친환경적(green) 회복’을 희망한다고 밝힘. EU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들 양국이 발표한 내용에는 모든 경제 부문에서의 회복 로드맵과 탄소 배출권에 대한 최소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음. 2p
파키스탄	- 손 소독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 도입(6.8) ▶ WHO의 권고 사항에 따라 알코올 기반의 원료 목록을 포함하며, 제조업체들은 효능, 에탄올 함유량, pH 레벨 등이 부합한 제품을 제조해야 하며, 포장, 표지 및 마케팅에 대한 규칙도 준수해야 함 2p
필리핀	- 손 세정제와 소독용 알코올 제품 목록 업데이트(6.8) ▶ FDA는 미등록/미신고 제품을 피하기 위하여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유명 특정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권고함. 3p

[유럽연합, 파키스탄, 필리핀] 코로나 관련 외신

- (유럽연합) 프랑스와 독일이 코로나19로부터 유럽연합(EU)의 '친환경적(green) 회복'을 희망한다고 밝힘(6.3)
 - EU 권역 내 최대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은 개별 국가가 아닌 EU 전체 차원에서 5천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회원국을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음.
 - 조달된 자금은 “대출이 아닌 보조금의 형태”로 지급되며 큰 손해를 입은 부문을 중심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.
 -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집행되는 지출은 EU가 저탄소 배출 경제권역으로 발돋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됨.
 - EU 권역 내 모든 업종들은 '친환경 회복 로드맵'을 제시받게 될 것이며 해당 로드맵에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목표치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.
 - 다만 오스트리아, 네덜란드, 스웨덴, 덴마크 등 4개 회원국은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기금 조성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됨.

☞ <https://uk.reuters.com/article/uk-eu-recovery-climate/germany-france-throw-weight-behind-eus-green-recovery-plan-idUKKBN22V1ZJ>

- (파키스탄) 손 소독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 도입(6.8)
 -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기관(PSQCA, Pakistan's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)은 지난 5월 5일에 시행된 손 소독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함.
 - 이는 PSQCA의 보고서가 발표된 데에 따른 것으로, PSQCA 조사관들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60개의 손 소독제 중 23개가 알코올 함유량 및 pH 레벨이 WHO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함.
 - 손 소독제 제조업체들은 기준의 부칙에 설명된 시험 방식에 따라 효능, 에탄올 함유량 pH 레벨 등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

제품을 제조해야 함.

- 포장, 표지 및 마케팅에 대한 규칙 또한 준수되어야 하며, 영어, 스와힐리어 또는 프랑스어로 된 사용법과 적절한 경고문도 포함해야 함.

☞ <http://members.chemicalwatch.com/120603/pakistan-new-hand-sanitiser-standard-in-force>

□ (필리핀) 손 세정제와 소독용 알코올 제품 목록 업데이트(6.8)

- 필리핀 식품의약품(FDA,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f the Philippines)은 손 세정제와 소독용 알코올 제품의 승인 목록을 업데이트함.
- FDA는 미등록/미신고 제품을 피하기 위하여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유명 특정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권고함.

☞ <http://www.fda.gov.ph/updated-list-of-notified-hand-sanitizers-and-rubbing-alcohol-products-as-03-june-2020>